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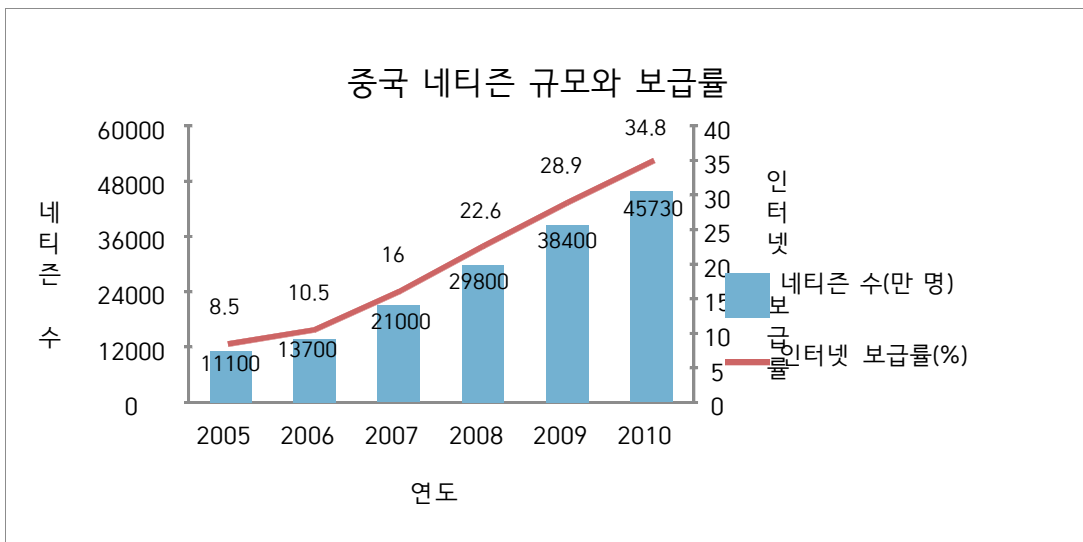


『 11-08호 주간 심층이슈 』

중국 대학생 온라인 열독 현황

□ 중국 네티즌 규모와 인터넷 보급률

- 중국인터넷정보센터(CNNIC)가 발표한 ‘제27차 중국인터넷 발전상황통계보고서(中国互联网发展状况统计报告)’에 의하면 2010년 12월 말까지 중국 네티즌 규모가 4억57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힘. 뿐만 아니라 휴대폰 인터넷사용자 수가 3억300만 명으로 증가해 중국의 네티즌 총규모를 확대시키는데 주요 동력이 됨



- 인터넷 보급률도 2009년보다 5.4%증가한 34.3%에 달함
- 중국 휴대폰 인터넷 이용자수는 3억300만 명으로 2009년보다 6930만 명 증가함. 전체 네티즌 수에서 휴대폰 인터넷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말 60.8%에서 66.2%까지 증가함
- 휴대폰 인터넷 이용자 증가속도는 기존 인터넷 이용자 증가속도보다 빠른 추세로 중국 전체 인터넷 이용자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주요 동력이 되고 있음
- 중국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기기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임. 노트북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 2010년 네티즌의 데스크탑, 휴대폰, 노트북을 통한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78.4%, 66.2%, 45.7%로 2009년과 비교해 노트북을 이용하는 네티즌 수가 15%로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휴대폰과 데스크탑 이용률은 5.4%, 5% 증가함

□ 중국 네티즌 연령 분포

- 중국의 전체 네티즌 수 가운데 18~2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1%로 가장 많음. 18~24세의 네티즌 수 중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생, 대학원생(석사·박사)이 약 51.8%를 차지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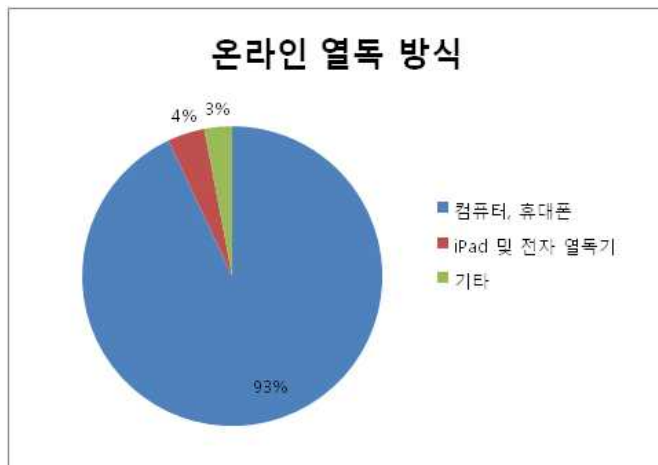
- 인터넷의 보급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대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있음
- 대학생들은 새로운 현상 및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적응력이 뛰어난 사회구성원으로 까오카오(高考:한국의 대입수학능력검정시험)이후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음. 때문에 온라인 열독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대상임
- 최근 10년 간 중국 대학생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에 이르러 그 수가 3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

□ 중국 대학생 온라인 열독 현황

- 중국 대학생들의 온라인 열독에 대한 생각과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, 그들이 온라인 열독을 이용하는 목적과 유료 콘텐츠에 관한 의견 등을 파악하고자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
- 북경대학(北京大学), 북경대외경무대학(北京对外经贸大学), 북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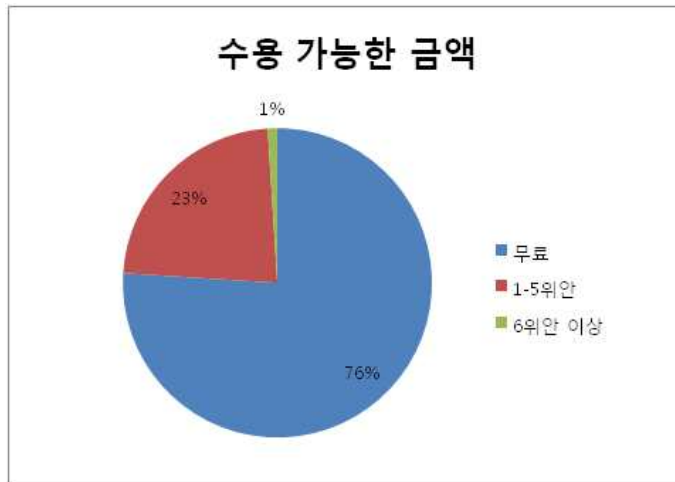
연합대학(北京联合大学), 북경이공학원(北京理工学院), 사천대학(四川大学), 산둥대학(山东大学) 총 6개 대학의 18~25세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함

-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92%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열독 경험이 있다고 밝힘. 그 중 51%는 휴식시간을 이용해 가끔씩 온라인 열독을 이용하고 있고, 39%는 매일 1시간~2시간을 소요하고 있음
- 대학생들의 과외시간이 매일 평균 8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온라인 열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1/4임. 조사대상 가운데 절반가량의 대학생이 온라인 열독을 생활의 일부부분으로 여기고 있었으며, 인터넷의 활용도가 증대되면서 온라인 열독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
-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83%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열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
- 온라인 열독을 좋아하는 집단은 두부류로 분류할 수 있음. 한 집단은 열독에 대한 관심보다는 웹서핑을 좋아하는 부류로 인터넷에서 게임, 블로그, 영화 콘텐츠를 즐겨 이용함. 온라인 열독은 부수적인 콘텐츠에 불과함.
- 다른 한 집단은 독서를 좋아하는 부류로 기존의 종이책에 대한 관심이 온라인 열독으로 전이됨. 그 밖에 온라인 열독을 즐기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집단은 주로 자료 검색이나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함



- 93%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온라인 열독을 접하고 있음
- 컴퓨터와 휴대폰은 대학생들의 필수품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학생은 대도시 기준 80%로 나타남. 굳이 본인의 컴퓨터,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대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, 매일 평균 2시간 이상 인터넷에 접속함. 음향과 영상이 어우러진 생동감 있는 콘텐츠 또한 학생들의 온라인 열독을 부추기고 있음
- iPad 혹은 전자책 단말기를 이용하는 학생은 4%에 불과함. 가장 큰 원인은 단말기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임. 그러나 전통 열독방식과 가장 유사한 크기와 방식을 제공하는 전자책 단말기는 컴퓨터나 휴대폰에 비해 눈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.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격이 조정된다면 전자책 단말기의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
- 세간을 뜨겁게 달구던 iPad 역시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기대가치는 높으나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림. iPad를 사용하고 있는 소수의 학생들 또한 iPad를 열독을 위한

도구가 아닌 유행의 전유물 정도로 간주함



- 유료 콘텐츠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76%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무료 콘텐츠만 이용하겠다고 대답했으며, 23%는 한 달에 1위안~5위안 정도, 나머지 1%정도만 한 달에 6위안~20위안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힘
- 중국 대학생들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유료 콘텐츠가 어떤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임. 즉 해적판의 범람은 중국에서 유료 콘텐츠를 보급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
- 해외의 유료 콘텐츠 보급 체계는 중국과 달리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. 전자책 및 전자 간행물의 경우 가격이 명시되어 있으며,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동시에 판매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유료 콘텐츠가 보급되고 있음
- 중국의 전자책 판매가 책정에도 문제가 존재함. 일정한 규정이 없는 현재 어떤 사이트는 글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, 어떤 사이트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도

합

- 현재 중국의 전자책 시장에서는 전자책과 종이책이 동시에 출간되지 않고 있음. 그러므로 전자 열독 단말기와 전자책 콘텐츠를 묶어서 세트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이 중국 정서에 더욱 부합된다는 의견이 존재함
-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열독 분야는 ‘소설류와 신문’, ‘학습자료’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.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62%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 소설을 즐겨 읽는 것으로 조사됨
- 이 학생들에게 온라인 열독은 순수오락으로 다가옴.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설은 종이책으로 출간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으로 “패스트 문학(패스트 푸드에 빗댄)”으로 일컬어짐
- 학생들이 전통문학작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, 사실 중국의 인터넷 상에서는 전통문학작품의 판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열독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
- 학습자료 검색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28%로 보통 인터넷에서 산발적으로 분포되어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,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여 학술정보를 얻고 있음
-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료 사이트보다는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선호함. 그러나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,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손쉽게 찾을 수 없음. 유료 사이트는 상대적으로 내용

이 정확하고, 검색이 용이하나, 각 사이트마다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음

<참고: 2011 2월 온라인 소설 순위>

순위	소설명	추세	최근 7일 간 접속자 수
1	투파창만 (斗破苍穹)	↓	5,521,013
2	탄서성공(吞噬星空)	↑	1,298,394
3	영생(永生)	↑	938,935
4	이세사군(异世邪君)	↑	967,364
5	범인수선전(凡人修仙传)	↑	746,292
6	선역(仙逆)	↑	827,666
7	보보경심(步步惊心)	↑	268,475
8	천주변(天珠变)	↓	629,391
9	차천(遮天)	↓	499,119
10	중생지적행천하(重生之贼行天下)	↑	328,839

□ 인터넷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

- 중국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위법 사이트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중국 신문출판총서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인터넷 상에 등록된 소설, 서적, 정기간행물, 게임, 모바일게임, 모바일소설 등 각종 위법 출판물이 2353종으로 집계됨. 신문출판총서는 14만 개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선을 삭제하였고, 2330개의 사이트를 적발함. 그 중 134개 사이트의 운영을 금지함. 그 밖에도 무허가 운영 사이트나 저속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온라인 게임 및 소설의 척결운동을 펼침
- 신문출판총서는 온라인 출판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적발된 운영 사이트와 콘텐츠 등을 TV와 신문 등의 매체에 공개하기로 함

- 인터넷과 인터넷 접속 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은 대학생들의 인터넷 접속률이 높아지고 있음
-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, 소설이나 신문, 잡지 등을 보며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음. 이들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기업의 윤리의식 강화가 필요함